1 아르헨티나 Argentine Republic

1977.3.21 비델라 대통령과 한국인 이민 증진 등에 대해 회담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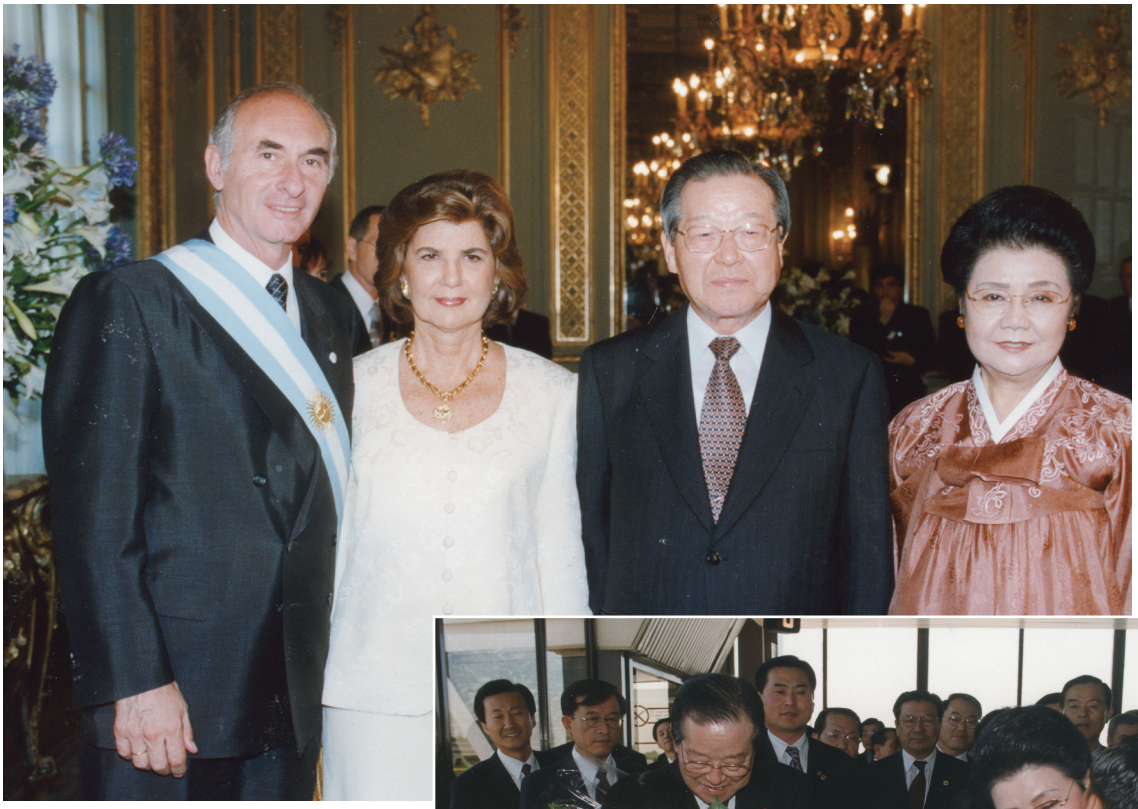
〈운정이 만난 대통령들〉

■ 아르투로 일리아(Arturo Umberto Illia, 1900~1983)는 의사이자 정치인으로 1963년 선거에서 급진시민단체 후보로 당선되었다. 오른쪽 사진은 당시 취임 퍼레이드를 하는 장면, 일리아 대통령(왼쪽) 대신에 국가정상 띠를 두르고 있는 후안 카를로스 옹가니아 연합사령관(오른쪽)의 쿠데타로 1966년에 쫓겨났다.

■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 레돈도(Jorge Rafael Videla Redondo, 1925-2013)는 아르헨티나의 군인 출신 정치인이다. 1976년 쿠데타로 이사벨 페론 대통령을 축출하고 군사정권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됐다.

■ 카를로스 사울 메넴 아킬(Carlos Saul Menem Akil, 1930-)은 아르헨티나의 정치인으로 1989년 대통령 선거에 페론 계열의 정의당 후보로 당선돼 61년만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다. 대통령에 취임한 뒤, 그는 불안정한 정국을 안정시키고, 초인플레이션을 진정시켜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나라로 만들었다는 평을 받았다.

■ 페르난도 데 라 루아(Fernando de la Rua, 1937년-)는 1999년 야당연합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 집권 페론당의 에두아르도 두알데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재임 중 재정적자 감축과 높은 실업률 해소 및 부정부패 척결을 주요 과제로 삼아 정책을 추진했다. 경제정책 실패로 2000년 IMF에 397억 달러의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했고 이듬해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게 되자, 결국 2년 만에 대통령직에서 사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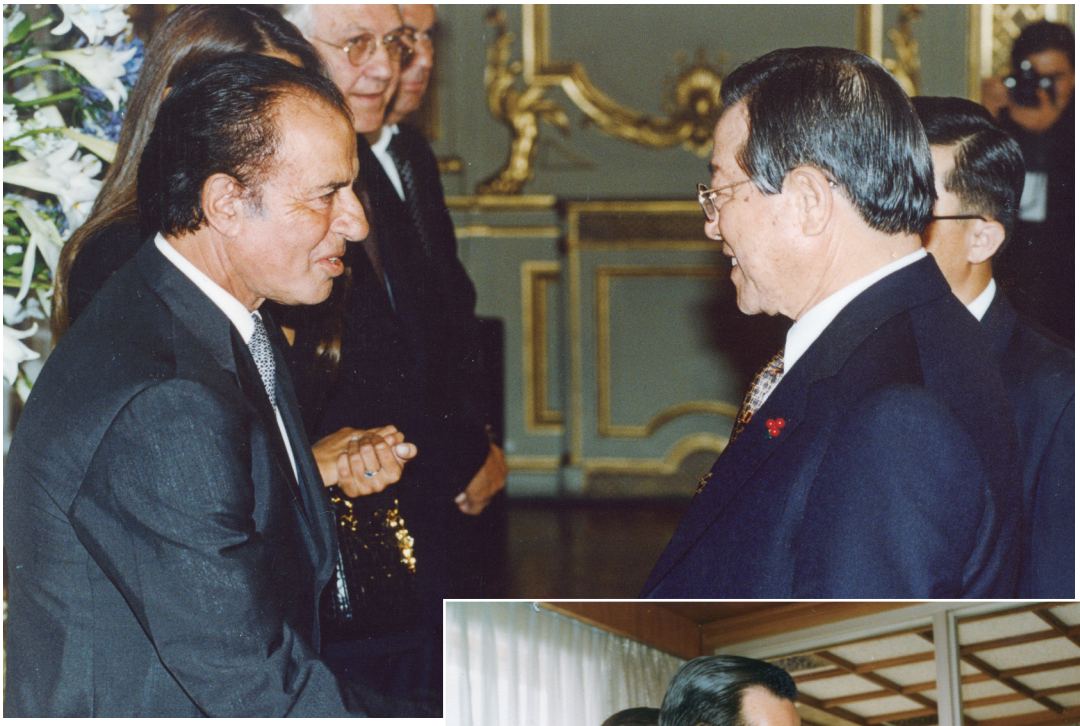


1999.12.10 델라루아 신임대통령 취임축하 리셉션에서 대통령 부처와 기념 촬영.

1999.12.9 부에노스 아이레스 에세이사 국제공항에서 교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1999.12.11 아르헨티나 한국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1999.12.11 아르헨티나 한인촌을 방문하여 상가를 둘러보고 교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1999.12.10 신임대통령 취임축하 리셉션장에서 정부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1978.2.23 아르헨티나 수교 훈장 대십자훈장을 받다.

2 브라질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 에르네스투 가이젤(Ernesto Beckmann Geisel, 1907–1996)은 브라질의 군부지도자였으며 1974년부터 1979년까지 대통령직을 맡았다. 당시 브라질에서는 정계에 인상을 남기고, 군인은 허가를 받아야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그의 집권 기간 동안, 그는 외국인들을 더욱 더 받아들였다. 반공주의가 철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산주의 세력들과의 화합을 시도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과 앙골라 외에 전 세계와 외교를 맺기 위해 노력했다.

1999.12.13 가이젤 대통령과 남북대화를 통한 통일과 유엔 정책, 이민 문제 등에 대해 회담을 갖고 있다.

1999.12.13. 브라질리아 공항에서 김종필 국무총리 내외 도착 환영 행사.

1999.12.13. 브라질리아공항에서 한복입은 교민 자제로부터 환영 꽃다발을 받다.

■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Fernando Henrique Cardoso, 1931년-)는 1995년 제3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과거 종속 이론의 입장과는 달리 공기업 민영화, 재정긴축, 무역 자유화 정책 등 대대적인 경제 개혁을 단행했다. 개혁에 대한 성과가 좋아 국민들의 인기를 얻어 1998년 선거 브라질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적인 절차로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다.

1999.12.15 까르도주 대통령과 양국 회담에 앞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1999.12.15 까르도주 대통령 초청 만찬에서 환영 인사를 나누고 박수로 화답하고 있다.

1999.12.14 마씨엘 브라질 부통령 주최 오찬에서 건배를 나누다.

1999.12.14 안또니우 까를루스 마갈량이스(Antonio Carlos Magalhaes) 상원의장과 만나다.

1999.12.14 테메르 하원의장과 만나 기념품을 교환하다.

1999.12.13. Naoum Plaza Hotel에서 수행원들과 만찬을 갖다.

1999.12.14. 주 브라질대사 주최 리셉션에서 브라질 지도자들과 만나다.

1999.12.16. 한인상가를 시찰하며 교민들을 격려하다.

1999.12.16. 상 파울루에서 브라질 동포대표들과 만찬장에서 격려하는 장면.

3 카나다 Canada

1989.6 카나다 방문 기념으로 뱅쿠버 교포가 제작해 보낸 사진

1998.11.24.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캐나다 투자사절단을 접견하고 있다.

1998.11.27 서울 대학로에서 캐나다 투자사절단 일행과 만찬을 함께 하다.

4 칠레 Republic of Chile

■ 호세 라몬 피노체트 우가르테(Augusto Jose Ramon Pinochet Ugarte, 1915 – 2006)는 1973년부터 1990년까지 칠레의 대통령을 지낸 칠레의 정치인, 군인이다. 그의 정권 하에서 권위주의적, 강압적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광범위한 경제 개혁이 시행되었다.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 인사 등을 약 3천명 정도 학살했고,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 당시 공직역임자 등에 대한 탄압 정책이 벌여져 독재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1977.3.23 대통령 피노체트 대통령과 회담하다.

1975.10.1 칠레정부로부터 대십자훈장을 수수하고 있다.

199.6.17 이임하는 주한 칠레대사와 접견하고 기념품을 주고받는 장면.

5 콜롬비아 Republic of Colombia

■ 알폰소 로페스 미첼센(Alfonso Lopez Michelsen, 1913-2007)은 콜롬비아의 정치인이다. 1974년부터 1978년까지 콜롬비아의 제24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1967년부터 1968년까지 세사르 주지사, 1968년부터 1970년까지 콜롬비아 외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1974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77.3.29. 로페스 미첼센 대통령(Alfonso Lopez Michelsen, 1913-2007)이 와병중이어서 대통령 대행 리에바노 외상과 회담

1999.1.8. 콜롬비아 하원의장 일행을 접견하고 기념촬영을 하였다.

6 코스타리카 Republic of Costa Rica

■ 다니엘 오두베르 키로스(Daniel Oduber Quiros)는 정치인, 법률가, 시인, 철학자로 1974년부터 1978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직했다. 카나다에서 철학을 공부했으며, 귀국 후 호세 마리아 피게레스 페레르를 주도로 한 혁명에 참가했다. 그는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시골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했으며 그의 정부는 다른 중미 국가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산호세에는 그의 동상이 있다.

1977.3.30 다니엘 오두베르 키로스 대통령과 회담하다.

1977.3.30 코스타리카 국회의장과 환담을 나누다.

1998.8.21 이임하는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에게 수교훈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나누고 있다.

7 파라과이 Republic of Paraguay

1966.10. 7 미국 체류 중 파라과이 대통령 요청으로 방문하여 회담을 갖고, 대훈장을 받았다.

■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르(Alfredo Stroessner ,1912-2006)는 파라과이를 무려 35년간이나 철권 통치한 그는 외국 언론에 의해 세계 10대 독재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 50년 전 '남미 이민루트' 연 JP

50여 년 전 남미 이민의 베이스캠프는 파라과이

한국인의 남미 지평은 이미 50여 년 전 이민외교 형태로 열렸다. 남미 이민의 베이스캠프는 파라과이였다. 김종필 전 총리가 루트를 뚫었다. 한국인은 이곳을 딛고 브라질·아르헨티나를 넘어 미국으로 달려갔다.

1963년 9월 '1차 외유'(63년 2월 25일~10월 23일) 중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다. 맨해튼 5번가의 호텔로 김정렬 주미대사가 찾아왔다. 유엔 주재 파라과이 대사를 만났는데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르(Alfredo Stroessner:1912~2006) 대통령이 나를 초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스트로에스네르 대통령은 육군총사령관이던 54년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대통령 선거에 단독 출마해 당선된 인물이었다. 그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다.

한국에서 군사혁명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이다. 나는 마침 아르투로 일리아(Arturo Umberto Illia:1900~1983)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받아서 남미 여행 일정을 잡아두고 있던 참이었다. 10월 7일 김정렬 대사와 함께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을 방문했다. 스트로에스네르 대통령은 나를 보더니 옛 친구를 만나기나 한 듯 막 껴안고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냐. 오늘 처음 만나지만 평소 당신을 존경했다. 만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곤 가슴팍에 주먹만 한 대십자훈장을 달아줬다.

파라과이 대통령에게 한국인 이민을 제안

그때 난 스트로에스네르 대통령이 왜 그리 환대를 했는지 진의를 잘 몰랐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는 언론에 코리아에서 굉장한 반공지사가 와서 훈장을 줬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댔다. 결국 비슷한 입장에 있는 나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이었던 것 같다.

나는 그때 스트로에스네르 대통령에게 미리 구상한 한국인 이민을 제안했다. "우리 민족이 해외로 나가는 발판을 만들고 싶다. 일본을 통해서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파라과이에 근거지를 만들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여러 중남미 나라로 이민 가는 길을 열어야겠다.

당신의 나라는 땅은 굉장히 넓은데 인구가 400만 명에 불과하지 않으냐. 한국에 우수한 노동력이 얼마든지 있으니 이민을 받아들여라." 파라과이는 국토 면적이 40만7000㎢로, 남한(9만9313㎢)의 네 배가 넘는 데다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와 달리 대부분이 평지다. 스트로에스네르 대통령은 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렇게 파라과이의 이민 허용을 계기로 중남미 이민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

1인당 국민소득 82달러 수준, 실직자 넘치던 시대 '덮어놓고 아이 낳다 거지꼴 못 면한다'

당시 한국은 최고회의가 1962년 3월 해외이주법(海外移住法)을 제정하고, 12월 브라질을 시작으로 남미 이민을 시작하던 초기였다. 일본은 100년 전에 이미 하와이와 미국 본토, 브라질·아르헨티나 등지로 이민을 많이 가던 때였다. 60년대 초 한국은 6·25전쟁의 여파로 지독하게 가난했다. 1인당 국민소득(GNP 기준)이래야 82달러(1961년)에 불과했다. 변변한 일자리가 없어 대학을 나와도 노는 실직자들이 넘쳐났다. 지금이야 아이를 너무 안 낳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때는 한 집에 자식이 평균 6명이 넘던 시절이었다. 오죽했으면 '덮어놓고 아이 낳다 거지꼴 못 면한다'(64년, 대한뉴스)와 같은 산아제한 구호가 나왔겠는가. 65년 시작된 파라과이 농업이민은 어려움이 많았다. 원래 배정됐던 개척지가 개간은커녕 생활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변변한 농기구 없이 개미떼와 독충과 싸우며 고군분투해야 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후일 수도 아순시온이나 상파울루(브라질)·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와 같은 대도시로 재이주했다. 처음엔 거리 행상을 하다 봉제업·의류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혀갔다.

일부 이민자 개구리 뛰듯 미국 밀항 경유지인 브라질 대통령에게 사과, 재발 방지

예상치 못한 문제도 있었다. 파라과이 농업이민자의 상당수가 그곳을 정착지로 여기지 않고, 미국과 같은 안정된 선진국으로 밀입국하려 했다. 인근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경유지로 여겼다. 영어로 말하면 프로그 점프(frog jump·개구리 뛰기)였다. 이민자들이 처음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로 밀항했다가 개구리가 뛰는 것처럼 미국으로 다시 한번 튀어가는 형국이다. 브라질 국경경비대에 체포된 한인들은 대부분 몇십만 달러씩 가지고 있었다. 국경경비대가 "무슨 돈을 그리 많이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면 이들은 브라질에서 살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고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라는 대답들을 했다. 브라질 대통령이 화가 나서 "한국민들이 파라과이에서 들어오는 거 받지 말고 전부 내쫓으라"고 했다. 결국 내가 브라질 대통령을 만나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했다.

10월 14일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 들렀다. 거기서 교포들을 만났다. 40명가량 모였는데 노인들만 한국사람의 모습이었다. 멕시코 교포 중 상당수가 이미 현지 여성들과 결혼해, 아들·손자뻘 되는 젊은 사람들은 혼혈이 많았다. 이들은 구한말인 1905년 일본의 인력송출 회사의 사기계약에 속아 인천 제물포항에서 배를 타고 멕시코로 건너와 에네켄(Henequen) 선인장 농장에서 노예처럼 일한 1000여 명 한인 농부들의 후손이었다. 그들은 한낮에 섭씨 45도까지 올라가는 타는 더위 속에서 에네켄 가시에 찔려가며 4년 동안을 일해야 했다. 안타까웠다.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이민정책으로 세계 곳곳에 한인들이 자랑스럽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는 생각에 머리가 무거워졌다.

존슨 대통령에게 "한국 사람들의 이민을 늘려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을 크게 열어달라" 요청

남미 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60년대 중반까지 한국인의 이민을 공식적으로 받지 않았다. 6·25가 끝나면서 미군과 결혼한 한국 여성이나, 양자로 입양된 전쟁고아들이 미국 이주의 대부분이었다. 미국은 린든 존슨(1908~1973년)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정책에 따라 65년 아시아계 이민을 허용하는 새로운 이민법(하트-셀러법)이 통과됐으나 발효는 68년에 됐다. 66년 10월 31일 존슨 대통령이 방한했다. 서울시청 앞에서 존슨 대통령 환영 행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다. 옆에 레이디 버드 존슨 부인이 앉아있었다. 바람이 좀 세게 불어 존슨 부인의 머리가 흩어졌다. 그때 존슨 대통령이 호주머니에서 빗을 꺼내더니, 아내의 머리를 빗어 정리해준 뒤 다시 앉았다. 한국 문화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었다.

청와대에서 존슨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월남 파병에 감사한다며 "뭘 도와주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한국은 64년 비전투부대 파병에 이어,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65년 청룡부대·맹호부대 등 전투부대도 파병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수많은 민족이 모여 미 합중국이 되는 나라인데 한국 민족만 빠져서 될 일이냐. 한국 사람들의 이민을 늘려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을 크게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그 전날 밤 박 대통령과 미리 상의를 하면서 존슨 대통령에게 미국 이민을 대폭 허용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미국 이민은 1970년대 초 본궤도에 올라 연간 3만 명 이상 나가게 됐다. (중앙일보 2015.5.27 일자 '소이부답')

8 페루 Republic of Peru

1977.3.25 모랄레스 베르무데스 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나누다.

■ 모랄레스 베르무데스(Francisco Morales Bermudez, 1921-1991)는 1975년 부터 1980년 까지 페루 정치인이자 사실상 페루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군대의 지휘자이다.1975 년 8 월 29 일 군대 지휘관으로서 그는 무혈 쿠데타를 주도하여 대통령에 오르고 국가에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의 목적은 혁명 과정이 겪고있는 "개인주의와 편차를 제거하는 것" 이었다.

1977.3.25 모랄레스 베르무데스 대통령과 회담하다.

오세아니아 Oceania 편

남태평양의 여러 섬을 총칭하는 말.

"오세아니아"는 대양(大洋)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대양주(大洋洲)라고도 한다. 넓은 뜻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멜라네시아·미크로네시아·폴리네시아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태평양 지역의 섬을 뜻한다. 좁게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멜라네시아·미크로네시아·폴리네시아 지역을 의미하기도 한다.

오세아니아의 수역(水域) 면적은 약 7000만㎢에 이르고, 그 안에 1만 개 이상의 크고 작은 섬이 산재해 있는데, 그중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를 제외한 좁은 뜻의 오세아니아의 섬의 총면적은 약 100만㎢이나, 그중 뉴기니섬이 약 80만㎢를 차지한다. 그들 여러 섬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470만 명이고, 인구밀도는 5명/㎢로 아주 낮다. 인종으로는 멜라네시아인·미크로네시아인·폴리네시아인 외에 유럽인·중국인·인도인·일본인 등이 있고, 그 밖에 상당수의 혼혈인들이 거주한다.

민족학 상으로 오세아니아는 멜라네시아, 미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로 세분한다

❶ 호주 ❷ 뉴질랜드

1 호주 Commonwealth Australia

1999.5.14 방한 중인 호주 부수상 겸 통상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1998년 12.15 방한 중인 한 · 호주협의회 대표단 예방을 접견하고 있다.

1998.6.10.일 이임하는 토니 헬리 주한 호주대사에게 훈장을 수여하였다.

2 뉴질랜드 New Zealand

■ 제니퍼 메리 시플리(Jennifer Mary Shipley, 1952-)는 뉴질랜드의 여성 정치인이다. 1997년 짐 볼저 총리가 사임한 후 후임 총리가 되었다. 뉴질랜드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하였다.

1999.7.21 경제사절단을 대동하고 방한한 시플리 총리와 회담을 나누고 기념 촬영.

1999.7.21 경제사절단 일행과 양국간 경제협력에 관한 회담을 갖고 있다.

아주阿洲 Africa편

아프리카(Africa, 음역: 아비리가(阿非利加))는 아시아 다음으로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대륙이다. 면적은 주변 섬을 합하여 3천2십만km² 으로, 지표 표면의 6%이며, 육지 면적의 20.4%를 차지한다.[2] 61개 영토에 11억 명(2014년 기준)이 살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14.8%에 해당한다. 아프리카 대륙 주변으로 북쪽에는 지중해, 북동쪽에는 수에즈 운하와 홍해, 남동쪽에는 인도양, 서쪽에는 대서양이 있다. 이 대륙에는 분쟁 지역인 서사하라를 빼고 마다가스카르와 여러 도서 지역을 포함하여 총 54개국이 있다.

아프리카 중 특히 동아프리카는 학계에서 현생 인류와 사람과 계열의 발상지로 여겨지는데, 초기 인류와 그 조상의 발견되었으며, 약 200,000여 년 전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초기 호모 사피엔스와 더불어 7백만여 년 전에 발견된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르가스테르 등의 많은 유인원들도 발견되었다.

적도가 지나며, 다양한 기후대가 나타난다. 또 북부 온대에서 남부 온대가 걸쳐 있는 유일한 대륙이기도 하다.

❶ 콩고 ❷ 코트디브와르 ❸ 이집트 ❹ 에디오피아 ❺ 리비아
❻ 말리 ❼ 모로코 ❽ 세네갈 ❾ 남아프리카공화국 ❿ 튜니시아

1 자이르/콩고민주공화국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1977.3.3 모부투 대통령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회담하다.

■ 모부투 세세 세코(Mobutu Sese Seko, 1930–1997)는 1965년부터 1997년까지 32년간 콩고민주공화국(1971~1997 국명 자이르 변경)을 통치한 국가 원수이며 1997년 쿠데타로 권좌에 물러났다.

2 아이보리코스트/코트디부아르 Republic of Cote d'Ivoire

■ 펠릭스 우푸에부아니 (Felix Houphouet–Boigny, 1905–1993)는 코트디부아르의 정치인으로, 코트디부아르의 초대 총리·대통령을 지냈다. 독립 운동을 주도하고 코트디부아르의 경제를 발전시켰으며, 파파 우푸에 (Papa Houphouet)라고 불리웠다.

1977.3.8. 우푸에 부와니 대통령에게 박정희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회담을 가졌다.

3 이집트 Arab Republic of Egypt

1999.2.4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무바라크 대통령(Mubarak)과 회담하고 있다.

1999.2.3 카이로 국제공항에 도착, 간주리 총리와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1999.2.4. 이집트 무명용사탑 및 고 사다트 대통령묘소에 헌화하였다

1999.2.6. 카이로 Winter palace 호텔에서 이집트 언론 기자들과 회견하고 있다

1999.2.6. 대우자동차 한 · 이집트 합작공장을 시찰하였다.

1999.2.6. 한 · 이집트 총리(간주리 총리) 회담 회담요록 서명서를 교환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1999.2.6일 한 · 이집트 민간경제협력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오찬, 연설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1999.2. 강창희 과학기술부 장관과 함께 이집트 국립박물관을 방문하고 있다.

1999.2.4 주이집트대사 주최 교민, 상사대표 초청 만찬에 참석하기 전 교민 자녀로부터 환영 꽃다발을 받고 있다.

1999.2.6. 카이로 유적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살펴보고 있다.

1999.2.5 룩소르 신전을
둘러보고 있다.

1999.4.9 김종필 국무총리의 1999년 2월 이집트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내한한 무바라크 대통령과 두 번째 회담.

1999.4.11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과 한 · 이집트 아드리아조선소 개발을 위한
한 · 이집트 양국 양해각서를 조인하였다.

1999. 4.9 무바라크 대통령 부부 방한 환영행사에서 두 달만에 반갑게 인사를 나누다.

1999.4.10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과 환영 오찬에서 건배를 나누고 있다.

1999.4.11 환영 오찬장에 입장하는 무바라크 대통령 부부를 맞이하는 박영옥 여사.

1999.4.10 간주리 총리 환영 만찬장에 손을 맞잡고 입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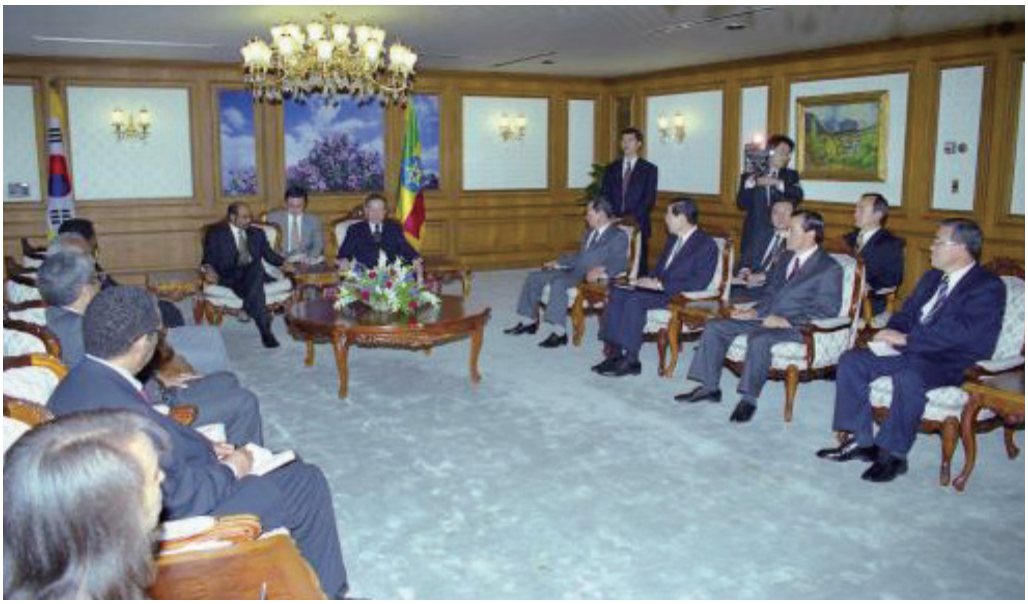
1999.4.10 무바라크 대통령과 함께 방한한 카말 간주리 총리와 회담.

1999.4.26 교육부 장관의 예방을 받아 환담을 나누었다.

4 에티오피아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 멜레스 제나위(Meles zenawi, 1955-2012)는 멩기스투의 독재가 끝낸 1991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며, 1995년에 네가소 기다다에게 대통령 직을 승계했다. 같은 해, 자신은 총리가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집권했다.

1998.10.26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해 방한한 멜레스 제나위 총리를 접견하였다.



1998.10.26 멜레스 제나위 총리 일행과 회담.

5 리비아 State of Libya

■ 모아메르 엘 가다피(1942-2011)는 1969년 리비아 육군 중위로 복무 중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왕정을 폐지하고 리비아의 국가원수 겸 국가평의회 의장 겸 총리 겸 국방장관에 올랐다. 1977년 이슬람주의, 범아랍주의를 융합한 인민권력 체제를 선포한 그는 '인민 직접민주주의'라는 독특한 체체 구축을 명분으로 의회제와 헌법을 폐지, 전제 독재권력을 강화했다. '혁명의 지도자이자 수호자'를 자칭하며 민족주의, 반미주의 독재정치를 폈으며, 리비아의 최장기 국가 지도자였다.

1999.6.16. 남아프리카공화국 넬슨 만델라 대통령 이임식 및 음부옐롸 음베키 대통령 취임식 오찬장에서 무하마르 알 카다피 대통령과 만났다.

6 말리 Republic of Mali

1999.10.19 방한중인 말리 총리 부부와 만찬에 앞서 기념 촬영.

7 모로코 Kingdom of Morocco

■ 하산 2세(Hassan II, 1929-1999)는 과거 모로코를 38년 동안 철권 통치했던 군주이다. 1961년 무함마드 5세가 사망하면서 모로코의 국왕으로 즉위하였다. 그는 서사하라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1977.2.22 모로코 라바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국왕 의장대를 사열하는 장면.

1977.2.23 하산 2세 국왕을 예방하여, 남북관계와 유엔 정책에 대하여 회담을 가졌다. 국왕은 한국의 정책을 전폭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77.2.22 라바 공항에서 모로코 교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8 세네갈 Republic of Senegal

■ 레오폴 세다르 상고르(Leopold Sedar Senghor, 1906-2001)는 세네갈의 시인이며 정치가이자 문화 이론가. 세네갈의 초대 대통령으로 5번의 임기(1960년 ~ 1980년)를 역임했다. 상고르는 아프리카인으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프랑세즈(프랑스의 국립 학술원)의 멤버가 된 인물이며, 세네갈 민주당의 창설자이기도 하다. 그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아프리카 지식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1977.2.27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국가들의 리더로 손꼽히는 생고르 대통령의 극진한 예우를 받으며 회담하고 있다.(위 글은 생고르 대통령이 사진과 함께 보내온 친필 편지)

1977.2.27 회담에 앞서 생고르 대통령이 박대통령의 친서를 열어 보면서 한국에 대한 강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1977.2.26 세네갈 공항에서 환영 나온 교민 아들의 머리를 귀엽게 쓰다듬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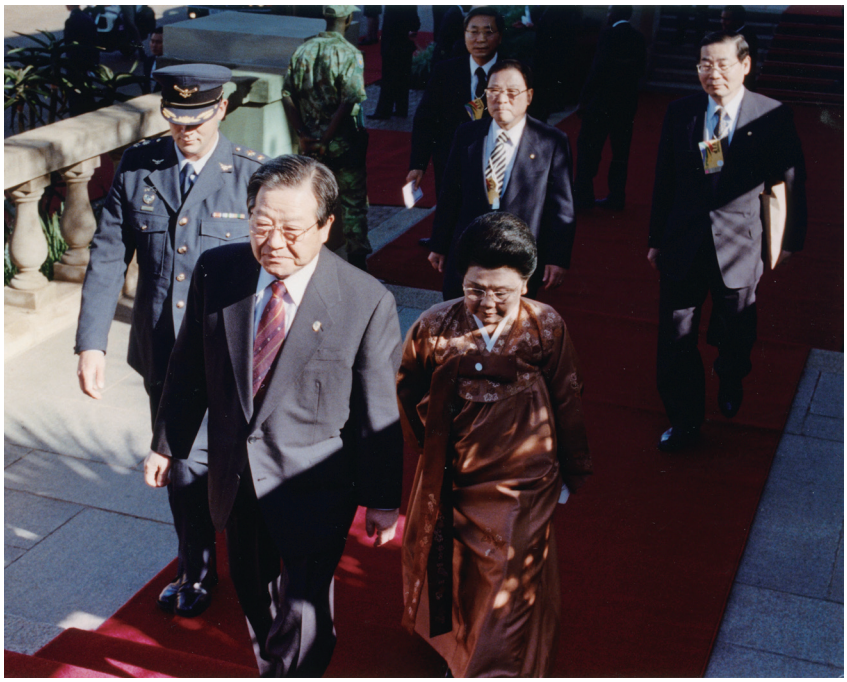
9 남아프리카공화국 Republic of South Africa

■ 타보 음부옐롸 음베키(코사어: Thabo Mvuyelwa Mbeki, 1942-)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인으로, 1999년 부터 2008년 까지 대통령을 지냈다.1962년부터 1990년까지 망명 생활을 하였던 그는 국외에 있으면서도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단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99년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직을 사임하자 그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되었다. 그의 재임 동안에는 인종 차별로부터 변화를 계속 추진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늘어나는 범죄와 에이즈의 예방에 전념하였다.

1998.4.15. 내한중인 타보 움베키 부통령(1999년 만델라 후임 대통령) 환영 만찬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1998.4.15. 움베키 부통령 부인과 만찬에 앞서 박영옥 여사가 담소를 나누고 있다.

1998.4.15. 환영 만찬에서 담소를 나누는 박영옥 여사와 움베키 부통령.



■ 넬슨 롤리랄라 만델라(Nelson Rolihlahla Mandela, 1918-2013)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평등 선거 실시 후 뽑힌 세계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그는, 아프리카 민족회의(ANC)의 지도자로서 백인정권의 인종차별에 맞선 반아파르트헤이트운동을 지도했다.1962년 반역죄로 체포되고 1964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27년 만인 1990년에 출소했다.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또한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무덤에 비석을 세워줌으로써, 아파르트헤이트 시절의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잊히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저서로 뉴욕 타임스가 뽑은 20세기 최고의 책에 선정된《자유를 향한 긴 여정》이 있다.

1999.6.16 만델라 대통령 이임과 움베키 대통령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1999.6.15 요하네스버그의 Park Hyatt 호텔에서 열린 교민 및 주재상사 대표를 위한 만찬에서 격려 연설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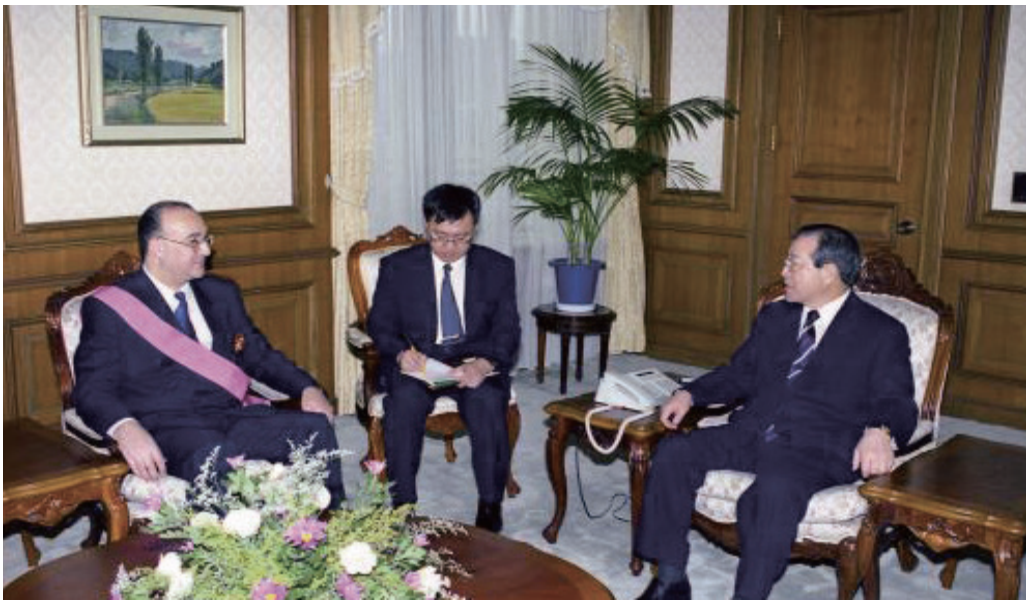
1999.6.17 주 남아공대사관에서 대사관 직원, 수행원들과 기념 촬영

1999.6.16 케이프타운 공항에서
교민 소년의 환영 꽃다발을 받고 있다.

1999.6.18. 케이프타운 희망봉 Cape Point에서
수행원들과 기념촬영.

10 튜니시아 Republic of Tuni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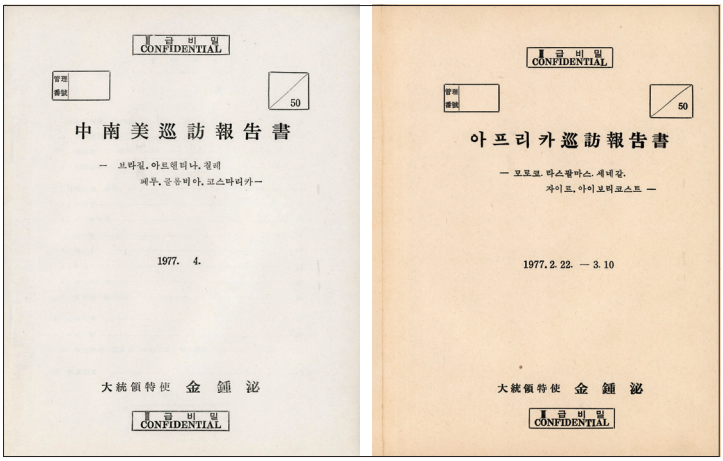
1999.9.16. 방한중인 외무담당 국무장관을 접견하였다.



1998.8.12. 이임하는 튀니지대사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나누고 있다.

아프리카 순방 보고서 요약

1977년 2월부터 3월말까지 김종필 의원이 대통령 특사로 사절단을 이끌고 중남미와 아프리카 11개국을 순방하고 귀국하여 작성한 '아프리카 순방 보고서'와 '중남미 순방 보고서' 두권. 이 보고서는 대통령특사 김종필 명의로 작성되었는데, 자세한 순방 일정과 각 국의 일반사항과 교섭사항, 정상과의 회담 내용, 종합관찰 사항, 건의사항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 사절단 구성

단장 : 대통령 특사 김종필

단원 : 국회의원 김동성, 김진봉, 정일영

이외 수행원 3명

– 방문 목적

1. 대통령 친서 전달
2. 한국의 평화 통일 외교정책 설명 및 지지 확보
3. 방문국과의 실질 협력관계 강화책 강구

■ 하산 국왕 면담 요지

– 극동에 있어서 우리의 친우는 한국 뿐이며, 모로코 왕국은 언제나 한국과 함께 있음.

– 인내, 침착, 근면이 한국의 발전을 가져온 것이며, 한국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었음.

– 사하라사막에 무진장 매장되어있는 철광, 인광석의 개발과 가공, 섬유공업과 수산 분야의 기술 도입과 합작 개발을 요청함.

– 특사가 요청한 모리타니나 라스팔마스 어업 분쟁 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음.

– 아프리카, 아랍 토후국 국가원수들과 친근한 관계이므로 언제든 요청하면 협력하겠음.

– 동석한 오스만 수상과 라라키 외상이 모리타니아와 국교회복에 측면 지원을 약속함

– 특사가 제안한 운정장학재단 유학생 2명 초청 수락함.

#이 외 한-모 문화협정,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한국 자본과 기술도입 등 경제협력 문제 논의함

■ 라스팔마스 비공식 방문 내용

– 항구에 입항한 한국 트롤어선(18척)에 승선하여 선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 전달함.

– 기지에 있는 한국선원회관에서 250여명의 선원들을 초대하녀 위로연을 열고 모국 소식과 어업문제 해결 추진 상황을 들려주고 고국 영화와 교과서를 보내달라는 간청에 대해 즉시 조치를 취함

–한국원양어선단은 197척이 집결하여 작년에 1억달라 이상의 어획고를 올렸으며 스페인 다음의 대선단이며, 기지에는 선원과 가족 5,700명이 잇으며, 일본 어부들의 2배가 넘는 하루 12-15회의 투망投網을 하는 초인적인 어로漁撈를 하고 있었음

–이 해역 일대가 스페인에서 모리타니아로 이관됨에 따른 입어入漁 제한 문제는 곧 국교 재개를 통해 우리 선단의 사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힘.